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지정

향후 3년간 4억5천여만원 지원받아

지난 97년 12월 29일 정보통신부는 우리학교를 '경희부설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소장: 진용욱 전과공 교수)'로 선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3년간 정보통신부로부터 4억 5천여만원(창업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한편, 우리학교 자체적으로도 설립실습설비 등을 공동 지원하여 창업을 원하는 학생, 교수 및 96년 이후 창업을 한 동문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이 센터에서 2000년까지 5개 이상의 창업회사를 설립할 경

우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창업지원센터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설립준비, 지원환경구축, 효율적인 운영, 창업활성화 등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입주하는 벤처기업에게는 시설공간, 통신망과 전산설비·각종 연구 개발장비·사무용 기기 등을 지원하며 정보 공유체제도 구축한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벤처 기업으로 판단될 미국유

학 등을 통해 국제적인 창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대 3층에 들어서게 될 지원센터는 현재 공사중인 멀티미디어 교육관 완공시 교육관 내부로 이전한다. 또한 지원센터는 3월중 시설 및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며 지원분야를 연구 개발장비·사무용 기기 등을 지원하며 정보 공유체제도 구축한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2년 이내에 독립해야 한다.

진용욱 소장은 "현재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는 창업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창업을 할 때 뿐 아니라 취업에도 매사를 철저히 책임지고 기획,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있는 학교는 고려대, 서울대, 숭실대, 한양대가 우리학교의 쾌적한 지리적 위치와 특화 분야의 집중 발굴 계획, 확고한 재정적 뒷받침 등이 선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지은기자>



5천4백여명의 새내기

지난달 27일 우리학교는 9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양캠퍼스가 한 장소에서 입학식을 거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서울캠퍼스는 크라운관에서, 수원캠퍼스는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진행했다. 5천 4백여명의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입학식은 우선 관계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파란만장한 새내기들이 오랜만에 교정을 활기차게 했다.

한의학 연구소 개발 건강 보조식품 시판

대보중탕, 가시오가피차 개발

IMF 한파로 인한 대학 재정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학교는 타계책으로 건강보조식품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학교가 개발,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경희 대보중탕과 경희 가시오가피차 두 가지다. 국민보건증전에 기여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대중화·실용화로 한의학 특성화를 실현코자 개발하게 된 이 상품들은 (주)개봉양행과 (주)진생코리아가 제조, 판매한다. 이는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차원에서 의의를 가지며, 차후 영농개발 농가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는 제조업체들이 판매해 얻은 수익금 중 일정비율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구개발관 건립 등 한의학 연구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시판한 두 상품은 기존 시가보다 30~5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등록금 분할대상 대폭 확대

지난 달 학적과에서 발표한 실적자녀를 위한 '등록금 분할제'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당초 실직자 자녀만을 위해 생겨난 이 제도는 등록금을 두차례에 납부해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직자의 자녀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부모가 실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적과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시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액보호 대상자 뿐 아니라 사

업부도도 증명이 어려운 경우 주위의 증명이 있으면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총학생회 경희문예운동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전공서적과 교양서적 구입에 따른 일반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중 전공서적과 교양서적에 대한 상설증고대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증고서적판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위탁자의 희망판매액 중 10%를 총학생회 기금으로 공제한다. 결되었다. 교양과목 학점 취득 특별 시험

수원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해 접수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동안 실시된다. 일부과목에 한해 시험을 통과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이 제도는 복수전공, 조기졸업 이수에 유리한 것으로 이번 시험의 응시원서는 중앙도서관 3층 수업과에서 접수하며 총 3과목 9학점으로 한과목당 1만원의 응시료를 납부하여 원상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서비스 요금정수, 버스트 자동차발급기의 설치등의 안전도 저향중이다. 한편 교내식당의 요금도 학생식당 백반이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교직원식당은 2천9백원에서 3천2백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의 식단과 공대식당의 요금은 동

경희사랑 '저금통에 답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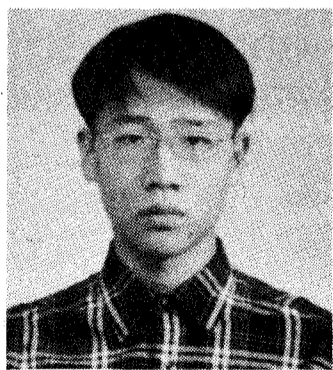
총 18차에 거쳐 3백여개 접수

지난 97년 초부터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가 발전기금 모금의 한 형태로 실시한 '경희사랑 저금통 모으기 운동' 결과 3백여개에 달하는 저금통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저금통마다 담긴 사연들도 각각각색인데 서울캠퍼스 조용호 학생처장의 경우 현재까지 18차에 걸쳐 저금통을 기부했는가 하면 지난 18일 열린 학군단 사사회에서 학군단 학생들 전체가 저금통을 기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저금통을 기부하는 사람은 대학내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경희초등학교나 경희여자고등학교의 참여율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 운동의 당초 목적인 애교심 함양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타학교에 귀감이 되고 있다.

엄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해 수원캠퍼스 학내복지시설 이용요금이 부분 인상된다. 스크린은 오늘부터 강남노선이 1천1백원에서 1천4백원으로, 수원노선은 4백원에서 5백원으로, 분당노선은 4백50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인상안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27일 협상을 거쳐 기사발달착용, 정복착용, 버스홍보관 설치, 교통게시판 설치, 승차장 파고라 설치, 교통개선위원회 매월 정기모임등의 요구안을 제시, 요금인상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서비스 요금정수, 버스트 자동차발급기의 설치등의 안전도 저향중이다. 한편 교내식당의 요금도 학생식당 백반이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교직원식당은 2천9백원에서 3천2백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의 식단과 공대식당의 요금은 동

서울캠퍼스 수석합격자 손경락(한의98)군

이성적 대학생활 설계 할터



을 기억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다고 한다. "누구 앞에 나서길 싫어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오늘도 조용한 객석을 앞에 두고 동기들을 대표해서 신입생 선서를 하러니 굉장히 어색했어요."라며 입학식에서의 긴장했던 순간을 얘기하기도 했다. "학과 공부외에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도 배우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라며 희망한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슬과 담배는 절대 싫다고 한다. "이성으로 판단한 행동도 후회할 때가 있는데 알몸이 들어가면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설계를 "완벽할 수 없기에 완벽을 포기했어요."라며 겸손의 말을 했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빈틈없는 가치관을 가진 새내기였다. <김수란 기자>

수원캠퍼스 수석합격자 왕민정(의료시스템공학98)양

"하고 싶은 것 너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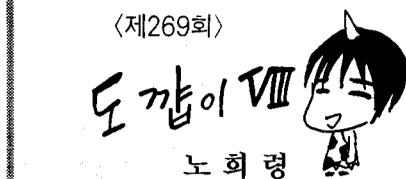
싶어했던 것들은 많았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포기했으며 현재까지는 프로듀서가 가장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현재 학과공부를 가볍게 보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한방의 세계화에 노력하겠다'는 다부진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자신이 선택한 학업에 대한 포부 또한 강하다. 누구도 자신의 적성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 자신이 하던 일에 과감히 변화를 주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그런 방식의 삶은 곧잘 남들보다 뒤처지기 쉽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학업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것이라는 그녀의 말에서 수석합격자의 자리에서도 '답답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앞이 버린 꿈을 우리는 쉽게 지나친다. 언제 주었는지조차 모르는 우리 일상의 꿈을 매일 새롭게 바꾸기보다는 적어도 몇가지는 가슴속에 남겨둬서 세상은 책상 위에 수북한 대장은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윤택 기자>

국제전형 합격자 정진오(영어98)군

경희안에서 '정'을 나누고 싶다



그는 국제화 전형 모집을 발견하고는 예전에 미국에서 보았던 토폴시험을 기억해 냈다. 6백 40점. 도전해 볼 만 하다고 생각했고 20%를 차지하는 눈높은 신문사설을 통해 혼란했다. 98년, 그는 국제화전형으로 경희대, 연세대에 합격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경희대? 연대? 그가 만난 두 번째 갈림길이었다. 그러나 '경희가족'이라는 말이 무척치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 주는 교수님들과 알찬 국제교육특강에 마음이 끌려 의외로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요즘은 국제교육원에서 배운 전산실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중이다.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E-mail도 보내고 세계 여러 친구들하고도 알고 싶거든요."라며 "외국어, 의학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깊게 영문학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대학생활을 계획한다. 훗날 낭만적 대학생활을 추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선배와의 깊은 정도 쌓고 싶다는 정군. 인터뷰를 마치고, 앞으로 그가 만나게 될 세 번째, 네 번째 갈림길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의 지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수윤 기자>



영상뉴스

명예박사 학위수여

토마스 포글리에터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에 대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지난달 27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949년 성요셉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토마스는 1955년 26세라는 최연소의 나이에 미국 필라델



피아의 시의원을 역임하고 1980년에는 미국 의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1991년 미국 의회 외부위원회 및 아시아와 군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아시아의 현안문제 해결 및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 것이다.

직원 정년퇴임

지난 25일 오후 4시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우리학교 직원 3명에 대한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한동명 전 재무처장, 박순환씨, 변복만씨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고자 마



련된 이 자리에는 조경원 총장, 김수근 서울캠퍼스 부총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경원은 "경희발전에 도움을 준 퇴임직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년퇴임 및 전체교수회의

지난달 26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정년퇴임식 및 전체교수회의가 열렸다.



전체 교수가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퇴임식에서 퇴임을 맞은 김관영(퇴임)교수, 류근림(체육)교수, 장문호(도예)교수는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2부 순서인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신입보직교수와 신입교수를 소개하고, 부서별 업무 및 학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